

가톨릭과 청소년의 심성교육

최 금 자

(천주교 서울대교구)

I. 심성교육이란?

1. 심성교육의 의미

가톨릭교회에 있어서 인간의 심성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느님의 말씀, 즉 성서에 나타난다. 성부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루가 복음 8: 4-15)를 통해 씨(하느님의 말씀)가 좋은 땅(착한 마음)에 떨어져야만 싹(말씀의 역사)이 나고 그의 열매(하느님 은총의 선물)가 삼십 배, 칠십 배, 백 배가 되어서 자신은 물론 이웃에게도 풍요로움을 선물로 나눠 받을 수 있음을 가르치신다. 심성교육이란 이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인간의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가는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한 율법학자의 질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하느님의 말씀이란, 첫째는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바치고 온 마음을 다해 창조주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며, 둘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것이다.¹⁾ 이에

1)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가는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율법교사의 물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

신앙인 모두는 하느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심성의 교육의 필요성은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신앙인 누구에게나 다 강조되어야 한다. 특별히 제2의 탄생을 맞이하여 자아발견에 대한 의지가 강한 시기이며, 우정과 사랑을 생각하고 체험하려고 애쓰는 시기이며, 고독의 체험을 통해 절대자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는 시기이며, 미래를 향해 희망차고 자주적이고 독립된 첫 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것이다.

2.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인간

가톨릭에 있어서 청소년 심성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하느님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앎이 선행되어야 한다. 성서에 제시된 하느님은 세 위격인 - 성부, 성자, 성령 - 유일신, 즉 삼위일체의 사랑의 하느님이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백성들과 동거동락을 하신 역사의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에 의해 그분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자신의 참모습을 찾고 이를 성숙시키는 삶을 살 때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1) 삼위일체(三位一體)이신 사랑의 하느님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독립된 세위격이시며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이신 분이다. 제1위격인 성부 하느님은 당신 사랑을 끝없이 아들 예수에게 부어주시어 사랑 안에서 그와 하나이며, 제2위격인 아들 예수 역시 아버지의 사랑에 당신의 사랑으로 응답하신다.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그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육화시어 인간에게 그분이 사랑의 하느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이다. 제3위격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온전히 사랑의 관

신다. “그들 중 한 율법교사가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율법서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라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마태오 복음 22: 37-39).

계에 동참하시는 분으로 인간의 위로자이시며, 아들 예수가 실현하는 하느님 구원 계획의 협조자이다. 성령 하느님은 예수의 파견을 받아 이 세상 끝날까지 인간을 하느님께 인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2)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느님

성서에 제시된 하느님은 무(無)에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시고 그 위에 모든 생명체를 살게 하신 분이시며 마지막으로 당신의 모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다. 성서는 하느님께서 “ ‘우리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 26) 라는 복수의 표현을 통해 삼위(三位)이며 일체(一體)인 하느님의 정체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성부(聖父) 하느님은 제1위격으로 ‘창조주’라는 수식어를 통해 자신이 이 우주의 최고 통치자이며 인간과 함께 인간 역사의 공동 책임자이며 주인이심을 드러낸다. 창조주 하느님은 천상옥좌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들의 수난의 역사에 기꺼이 동참하시는 분이로서 그들을 에집트 노예생활에서 이끌어 내신 해방의 하느님이시기도 하다. 또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기꺼이 이 세상에 보내시어 어둠 속을 헤매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의 최고 걸작품인 인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길 간절히 원하신다.

3) 구세주이신 아들 예수

아들 예수는 제2위격인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으로 육화한 분이시다. 성서는 그분의 인간으로서 육화를 “이사야가 말하였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 14; 루가 1: 30-33)고 제시한다. 임마누엘이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으로 제2격인 하느님 예수가 이 땅에 강생하시기에 세상 끝날까지 인간들과 동거동락 하심을 의미한다.

아들 예수는 세상을 죄악에서 구원하려는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 왔으며(요한 3, 16 참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받치시는 것이다. 예수는 아버지 하느님이 사랑 자체이시다는 것을 자신이 십자가 상에서 죽는 순간에 까지 증거하신다. 예수는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로 받아 들일 때 인간은 아

버지 하느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며, 하느님이 그분과 함께 하심을 스스로가 증거하는 것이라고 덧붙인다(요한 4: 14-15 참조).

4) 위로자/협조자이신 성령

성서는 창조주 하느님이 진흙(육체)과 입김(성령이 주신 인간의 영혼)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 “야훼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창세기 2: 7) - 당신의 숨길을 불어 넣으시는 하느님의 제3위격인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시한다.

예수는 당신이 인간구원을 위해 죽으시기 전에 인간의 위로자이며 협조자, 즉 성령을 보내 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다(요한 14: 1-26 참조). 그분은 진리의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인간을 하느님께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는 당신의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대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그분을 통해 초대 교회가 탄생하게 된다(사도행전 2: 1-13 참조). 성령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초로하여 세상에 개방되고, 성화와 성숙의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각자에 맞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기꺼이 봉사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고린토전서 12: 1-11 참조).

3. 사랑의 관계에서 잉태된 인간의 심성

인간의 창조는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자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흘러 넘쳐 당신들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자는 결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인간은 자신의 창조 순간부터 삼위일체 하느님 사랑에로의 초대에 불리워졌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인간이 진심으로 자신과 상대방인 너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자신들이 창조주 하느님의 모상임을 알게 되고 그분의 부르심에 ‘예!’라고 기꺼이 응할 것이다.

인간은 개체로서의 나의 탄생뿐 만 아니라(창세기2: 7 참조), 너 앞에 선 나, 나

앞에 서있는 너를 발견할 때 운명공동체로서 우리의 탄생이 있고, 이를 통하여 성숙한 인간으로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다(창세기2: 18-24 참조). 더 나아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을 향해 함께 나아갈 때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인간의 초월적인 모습을 사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하심을, 하실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II. 심성교육의 목적 및 내용

1. 가톨릭 청소년 현황

가톨릭교회 내에서 아동(만 7-12세)이 전체 신자수(3,562,766명)의 7.1%(254,297명)를 차지하고, 청소년(만 13-19세)은 전체 신자수의 11.6%(412,870명)에 달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와 미래의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갈 그들이 갖는 가능성과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²⁾ 가톨릭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교구내 각 본당의 주일학교에 소속되어 있거나, 교구 산하 단체인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연합회, 본당 중·고등학생 사목부, 중·고등학생 연합회, 중·고등학교 레지오 마리아, 가톨릭 스카우트 연합회, 가톨릭 성서모임 등과 같은 각종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심성교육의 주체(교육자)이며 대상(피교육자)인 청소년은 누구인가, 즉 그들의 신 앙상태, 생활양식 및 가치관을 아는 것은 청소년이 처한 현실상태에서 효과적이고

2). '한국 천주교회 통계' (1996. 12. 31. 현재)와 문화체육부의 '청소년 백서'(1996년)를 통해 본 한국 총인구와 가톨릭교회 총신자 중에서 청소년 연령(만13-19세)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 총인구(1995년 7월 1일 현재) 44,850,801명이며, 이중 만13-19세 해당하는 청소년인구는 5,630,818명으로 총인구의 12.6%이고, 노인 인구(50세-80세)는 8,107,060명으로 총인구의 18%를 차지한다. 1995년의 가톨릭교회 전체 신자수(3,451,266명) 중에서 청소년(396,477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11.5%이며, 이에 비해 노인(706,489명)의 비율은 총신자의 20.5%이다. 한국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청소년 인구의 비율 12.6%와 가톨릭교회 총신자 수에서 차지하는 청소년 수의 비율 11.5%를 비교해 볼 때 양자간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 및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노년 인구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사회나 교회는 젊은이에 대해 큰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가 희망차고 밝게 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교회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전인교육을 따른 인적·물적 투자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적합한 심성교육을 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청소년들은 종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들이 처해있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가치의 이중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청소년 문제가 기성세대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물질보다는 인간을, 목적보다는 과정을, 부당한 이득보다는 정직을, 현실안주보다는 변화를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가졌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그것이 제대로 통용되지 않는 것을 목격하게 될 때 그들은 가치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성세대들이 말로는 정의, 평등, 정직, 성실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현실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는 규범과 규율을 어기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때 청소년들 스스로도 서서히 기성세대의 이중적인 가치관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비록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해, 세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피부로 느끼는 이상주의[正義, 善性]와 현실주의[非理, 不義]와의 괴리가 심해질 때 점차 사회부적응이 초래되어 단순한 불만의 감정을 넘어서 자기 부정적 관념을 강화하는 좌절의 상태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각 삶의 공간, 즉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과거에 비해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톨릭 신앙을 포함한 제(諸)종교를 가진 청소년들은 아직도 자신과 세계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은 물론 가족과 친구들의 행복을 빌며 불행을 당한 이웃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려는 마음의 자세를 지니고 있다.³⁾

2. 심성교육의 목적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인간의 마음을 갈고 닦는 심성교육이 어떠한 목적을 갖는 것인가를 이제 알아보기로 한다.

가톨릭이 지향하는 청소년의 심성교육의 목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는 청소년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웃(가족, 또래 친구, 주일학교 교사)과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자신을 발견하며, 고독과 고립의 시련 중에 하느

3)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톨릭중등교육자회, 서울시 중·고등학생의 생활 세계에 관한 연구 - 가치관 및 생활양식 분석 -, 서울 1995; 청소년 대화의 광장, 이 시대와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청소년 생활윤리, 제3회 청소년 도덕성회복 학술발표대회(1997. 7. 10.) 참조.

님과 만남을 체험하도록 이끈다. 심성교육은 청소년의 개인적 성장의 독특한 면, 즉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영성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사목 지도자나 부모는 동반자이며 협조자의 입장에서 자율적이고 독립된 자아정체성의 확립을 열망하는 청소년 시기의 특성을 살려주고, 그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그들을 도와야 한다. 청소년은 사랑의 관계에로 초대하시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부르심[聖召]에 “예”로서 응답할 수 있도록 자신을 개방해야 한다. 사랑의 관계에 “예”라는 청소년의 응답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대답이다. 이는 자신의 이상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예수나, 세례자 요한처럼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용기와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가정 및 교회공동체에 진한 소속감 느끼고 공동체의 형성과 성장에 주체적인 입장에서 참여하도록 이끈다. 청소년 각자는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의 핵심 구성원임을 인식해야 하며, 가정과 교회의 성화와 성숙을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 신앙인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성체성사 중에 말씀의 전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의 전례를 통하여 한 식탁에서 생명의 빵과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한 형제·자매됨을 체험하는 것이다. 특별히 성찬의 전례 중에 나누는 “평화의 기도 및 인사”는 미사에 참례한 형제·자매들에게 진심으로 축복을 빌어 주고받음으로써 나눔의 신비를 체험하는 나를, 너를 그리고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청소년들에게 신앙과 생활의 일치로써 또래집단을 향한 하느님 말씀(복음)의 선포자가 되게 한다(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n. 12 참조). 그들의 타고난 생명력과 활동력으로 인격을 성숙시켜 이 땅에 사랑, 정의와 평화가 깃들도록 일익을 담당하게 이끈다. 청소년들은 같은 신앙을 나눈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한국인의 피를 나눈 이웃과 함께 밝은 사회, 개인의 존엄성, 자아실현 및 개성을 인정하는 다양한 사회,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사회를 만드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3. 심성교육의 단계

청소년의 심성교육에는 네 단계, 인생의 의미를 묻는 삶, 계명을 지키는 삶, 인간적인 삶, 은총의 삶으로 구분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한 단계는 다음에 오는 단계, 전 단계와는 구분되지만 서로 분리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은 계명을 지키는 삶의 기반 없이 인간적인 삶, 은총의 삶으로 비약할 수 없으며, 계명을 지키는 삶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결단을 거쳐 인간적인 삶, 은총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1) 인생의 의미를 묻는 삶(묻는 삶)

삶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묻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전 생애를 통하여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인 것이다. 특별히 자아정체성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지니며 무한한 가능성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자신의 인생 계획을 시도하는 청소년들에게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한다. 물음을 잃어버린 삶이란 창의성과 개성이 없는 획일된 삶이다. 왜 사는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인간답게 사는지를 묻지 않는 삶은 희망이 없는 기계적인 삶이다. ‘왜’라고 묻는 상황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는 체험을 제공한다.

성서에 나타난 인간은 늘 누구 앞에선 인간이다. 태초에 하느님이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어 남자는 여자 앞에 섰을 때, 여자는 남자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둘은 하느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온전한 인간으로 성숙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느님은 늘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것이다. “너[아담, 쥬은이] 어디 있느냐?”(창세기 3, 9)라고 물음을 받은 청소년은 처음에는 당황하겠지만, 차츰 자신이 서있는 현주소와 현재 삶의 의미를 스스로 묻게 된다. 이때에 청소년은 가까이에 자신이 신뢰하는 성인이 있다면 그의 협조와 격려를 받게 되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유한한 우리 인생에서 참다운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까지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성서에서 나오는 쥬은이가 예수를 발견하고 용기를 내어 그에게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마르코 복음 10, 17)라고 질문한 그런 자세를 말한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자신의 인생의 의

미를 찾으려는 열의와 그를 위해 모험을 시도하려는 호기심과 용기도 가지고 있다. 이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고독과 고립의 시련 속에서 겪게 되는 청소년의 내면세계에 대한 체험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도와주어야 한다. 이처럼 심성교육의 첫 단계로는 청소년이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도록 이끌며 인생에 대해 물음하도록 용기를 주어야 한다.

2) 규범·법을 준수하는 삶(계명의 삶)

모세의 십계명은 하느님이 인류와 맺은 계약의 한 부분으로 이는 인간의 일상생활을 위한 지침서인 것이다. 십계명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는 삶은 신자 모두에게 언명된 것이며 인간 세계의 올바르고 평화로운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조건이다. 이 계명들은 개인 행동양식의 근본을 이루며 인간 행위의 도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예수는 “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마르코 복음 10: 19 참조)는 말씀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규범과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초석임을 알려준다. 사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살도록 청소년들에게 권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더불어 사는 인간의 기본 자세를 배우게 하는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률이 잘 지켜지지 않는 우리의 현실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마음에 새겨진 계명과 양심에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3) 소유에서 해방되어 존재로서의 삶으로 전환(인간적인 삶)

인간은 그가 혹은 그녀가 가진 것(학식, 물질, 명예, 출세 등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혹은 그녀가 인간이기에, 즉 존재 자체로서 존엄한 것이다. 물질만능, 황금만능주의에 눈멀고 귀먹은 우리는 소유욕에 의해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존엄성을 깎아 내리고 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한스러워하며, 가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끝없는 터널을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젊은이에게 하신 “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라’ ”(마르코 복음 10: 21)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

게, 특별히 열정을 다해 인생계획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자기자신에게 고정된 시선을 이웃에게 돌리는 너그러움과 사랑을 베풀도록 권하신다.

4) 인간적인 삶에서 절대자를 향한 삶(은총의 삶)

도덕적 양심, 인간적인 삶을 넘는 그 무엇이 더 있음을,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증이 끊임없이 내재함을 인간은 확인한다. 이는 첫 번째 단계인 인생의 의미를 묻는 물음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점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즉 생명을 걸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계명을 따르는 삶과 인간적인 삶을 기반으로 은총의 삶은 시작되며, 청소년은 하느님의 부르심인 사랑에의 성소(聖召)를 택할 것을 예수가 “‘내가 시키는 대로하고 나를 따라 오너라.’”(마르코 복음 10: 21)한 말씀을 통해서 초대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소망은 자신이 평생 살 성소(聖召: 결혼, 수도, 사제)를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은총으로 각자가 선택한 자신의 성소를 지키도록 성령과 이웃들을 협조자로 보낼 것이고,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즉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4. 심성교육의 공간

1) 가정

가정은 인간의 존재양식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하느님이 태초에서부터 인간에게 허락하신 인격적이고 완전한 공동체 혹은 제도이다.⁴⁾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라며 새로운 자신만의 가정을 꾸미기 위해 자신이 태어났던 그 가정을 떠난다. 부모는 자식의 신체적인 탄생에서뿐만 아니라 아동기와 청소년 시기에 형성되는 자아정체성과 인간 됨에 첫 번째요, 결정적인 교육자인 것이다. 또한 청소년 자녀의 신앙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는 청소년 자녀가

4) 성서 창세기에는 가정의 시작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한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창세기 1: 26-28).

인간으로서 절도 있고 책임 있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도덕성, 판단력, 기본적인 예의범절을 배우도록 가르쳐야 한다. 청소년은 부모와의 인격적인 대화를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며, 대화하는 습관은 앞으로 부딪치게 될 청소년 시기의 여러 체험들을 제대로 풀어 가는 큰 힘이 되고, 또한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상적인 통로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톨릭 신앙을 믿고 그대로 사는 부모는, 즉 언행일치와 하느님과 이웃을 향해 열려진 삶을 자녀에게 증거할 때 자녀의 심성을 선하고 분별력 있게 형성토록 이끌며 그 누구도 차별함이 없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터득하도록 자녀를 도울 것이다. 또한 부모는 고도의 산업화와 전문화된 현대사회에서 복합적이고 전인적인 자녀교육을 위해 교회 공동체와 각종 교육기관과의 공동연대를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창출해 내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나사렛에서 부모,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보냈던 예수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시절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21세기를 사는 부모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들이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자 곧 유다 산골 마을에 사는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 이미 그녀는 아들 요한을 임신한지 6개월이 넘은 상태였다 - 찾아가 그곳에 석 달 가량 머물렀던 까닭은 두 여인이 이미 자녀교육을 위해 서로 상부상조하는 연대감을 형성하였고 그들의 심성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비록 성서는 그 후의 만남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는 않지만 첫 번째 만남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의 깊은 의미를 되새겨 보았을 때 그녀들의 만남은 계속되었을 것이며, 이는 30년 후에 구세주로서의 예수와 예언자로서의 요한의 심성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⁵⁾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예수의 심성에 깊은 영향을

5) 요셉의 약혼자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성령을 통한 하느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들 예수를 잉태한 사건과 사촌 언니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기적적으로 아들 요한을 잉태한 사건은 하느님의 인류 구원 역사에 의미심장한 일인 것이다. 두 여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이미 태어날 아이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였으며, 아이들의 장래에 대한 예감을 - 예수는 구원자/개혁자, 요한은 예언자로 - 의식적으로나 혹은 무의식적으로나 감지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정을 아이들이 장래를 준비하는 장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며칠 뒤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걸음을 서둘러 유다 산골에 있는 한 동네를 찾아가서 즈가리야의 집에 들어 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드렸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에 그이 뱃속에 든 아이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큰 소리로 외쳤다.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에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 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문안의 말씀이 네 귀를 울렸을 때에 태중의 아기도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

미쳤는데 이는 예수가 공생활하는 중에 한 여러 비유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는 이 지상에 세워질 하느님 나라와 이웃에 대한 너그러움을 설명할 때 “등불의 비유”(마르코 복음 4: 21-25; 루가 8, 16-18; 마태오 5: 15), “밀가루 반죽의 효소”(마태오 13, 33), “보물과 진주의 비유”(마태오 13: 44-46), “낙타와 바늘귀”(마태오 19: 23-26), “잃었던 은전”(루가 15: 8-10) 등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이는 평상시에 어머니와 나눴던 이야기들과 그녀의 표양이 마음에 깊이 남아 대중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에게는 소박하면서도 일상 삶과 연결된 소재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예수는 자신을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루가 20: 17)라고 비유하고, ‘반석위의 집’(마태오 7: 24-27) 비유를 통해 목수인 아버지 요셉에게서도 삶을 보는 안목에 영향을 입었음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예수는 목수인 아버지 요셉이 육체 노동자로서 근면하고 성실한 태도로 자기 직업에 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30년동안 아버지 곁에서 같은 목수로서 일한다. 이 체험을 통해 예수는 소외의 장으로써의 일이 아니라 자기실현의 한 장이라는 노동의 원래의 창조적인 의미를 회복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하신다. 우리는 성서에 나타난 성가정(요셉, 마리아 그리고 아들 예수)안에서의 역동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부모의 인내와 신뢰, 지혜, 신중함이 청소년 예수의 지덕체를 증진시키는데 큰 몫을 했음을 알아야 한다.⁶⁾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과연 21세기 한국 가톨릭 가정의 현상상은 어떠한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가톨릭 청소년들이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조언을 구하거나 상의를 하는 상대자가 부모보다는 친구를 선택한다는 사실은 단순히 그들이 부모의 권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독립되고 싶으며, 청소년 시기의 특징 중의 하나인 또래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성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더 이

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루가 복음 1, 39-45).

- 6) 성서는 예수의 청소년시절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부모로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 참례 후 3일 동안 행방불명된 아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명쾌히 보여준다. 아들을 과잉보호하는 오늘날의 부모와는 현저하게 다른 태도를 취했는데, 이는 예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에 행방불명된 아들 예수를 되찾았을 때 흥분하여 그를 무조건 나무라기 보다는 대화로써 자신들의 불안하고 안타까웠던 심정을 충분히 전달한다. “어머니는 예수를 보고 ‘아야, 왜 우리를 애태우느냐? 너를 찾느라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말하였다. … 예수는 부모를 따라 나자렛으로 돌아 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루가복음 2: 48-52).

상 부모는 신앙과 일상생활 안에서 청소년 자녀에게 있어서 삶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와 자녀사이에 충분한 대화가 오고 가는 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신자인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학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녀의 주일학교 참여를 기피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신자 부모로서 자녀의 올바른 신앙지도와 전인적인 교육 보다는 주입식 지식전달과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 치중하는 경향은 신자가 아닌 다른 부모들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2) 교회

오늘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익숙한 청소년에게 이웃과 더불어 사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정과 함께 교회를 꿈꿀 수 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부모와 한 자녀 혹은 두 자녀가 이루는 핵가족 제도 안에서 형제·자매와의 우애를 체험하지 못한 채 성장해 왔다. 교회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공동체적인 작업과 체험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이를 계기로 스스로가 이웃에게 개방되어 더욱 성숙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살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있는 공간인 것이다. 또한 청소년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체험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계하도록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인생의 지표로 삼도록 이끄는 다양한 체험들, 즉 성서봉독, 기도, 미사전례, 교리교육, 캠프 및 피정 등을 통해 자신의 성화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 모두의 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1) 미사 전례

청소년들을 위한 미사가 대부분의 성당에서 일요일 오전에 진행되고 미사 참례 후에는 각각의 장소에서 학년별 교리가 교리교사 1명이나 2명에 의해 이루어진다. 미사란 “파견한다”는 의미로 ‘지금 여기’라는 역사성과 시간성 안에서 2천년 전에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재현하는 것이다.⁷⁾ 미사는 구약(예언자들을 통

7)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대사제들과 성전 수위대장들과 원로들에게 잡히시기 전 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시길 언명하신다: “만찬

해 하신 옛 약속)과 신약(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새로운 약속)을 통해 나타난 하느님의 구원사건을 다시 확인하고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오늘(일요일) 이 자리(성당)에서 신앙인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하느님의 말씀(말씀의 전례)을 듣고 예수께서 준비한 한술밥(성찬의 전례)을 나누어 먹는 기쁜 잔치인 것이다.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의 인간됨 - 사랑하는 삶을 사는 - 을 위한 양식으로 거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을 관념으로가 아니라 전인적인 관계 안에서 체험한다면 청소년은 성체성사(미사)의 참 의미, 즉 구원역사의 참 의미를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삶을 숭선수범해서 살 것이다. 미사가 한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며 음식을 나누는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미사의 표현 양식과 내용이 오늘날 청소년들의 심성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미사에 참례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미사가 너무 경건하고 경직되어 있어서 생생한 현실감이 부족하고 축제의 분위기를 느끼기에 거리감이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므로 미사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의 감성에 맞는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평소 교회공동체 안에서 나눔의 신비, 즉 나의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까지도 진심으로 털어놓고 나눌 수 있는 네(친구, 교사, 하느님)가 있음을 체험했을 때 청소년은 기꺼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너에게 기쁘게 응답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외향적이고 과장되고 감성적인 청소년들의 행동에 쉽사리 가려지기 쉬운 그들의 고독과 고립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언행일치로 신뢰받는 성인만이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고, 그 고독을 통해 하느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가도록 도와 줄 수 있는 것이다. 비록 모든 순간 그들과 내면세계의 고통을 다 나누지는 못할 지라도 그들을 이해하려는 성인들의 자세는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이 밑바탕이 되어 미사 전례도 사랑, 신뢰와 평화를 나누는 생생한 삶의 한 현상이 될 것이다.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이 과일절 음식을 함께 나누려고 얼마나 빨리 왔는지 모른다. ...' 그러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자, 이 잔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잘 들어라. 이제부터 하느님 나라가 올 때까지는 포도로 빚은 것을 나는 결코 마시지 않겠다' 하시고는 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올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음식을 나누는 뒤에 또 그와 같이 잔을 들어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피를 흘리는 것이다' 하셨다(루가 복음 22: 14-21).

(2) 교리 교육

교리 교육은 청소년의 신앙심과 전인적인 성숙을 위해 교회 내의 활동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교회는 교리 교육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의 정통교리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예수님과 만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청소년의 심리특성인 나 아닌 너를 찾으려는 갈망을 불러일으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의 친구로서의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주일학교의 교리 교육은 주 1회 대부분 일요일에 중·고생을 위한 학생 미사 후 1-2시간 동안 담임 교사 및 부담임 교사에 의해 학년별로 교구에서 발행된 교리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최근 들어 주일날 교리와 별도로, 같은 동네에 사는 주일학교 학생들 중 초등부 1-6학년, 중 1-고 2 까지를 한반으로 하는 소공동체(동아리) 모임이 교구 청소년 사목 방침에 따라 13개 본당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공동체 모임은 기존의 학년별 교리 교육 보다는 세대 차를 - 요즘은 나이 차이 6개월마다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한다 - 극복할 수 있고 형이나 언니들과 함께 교리나 기타 취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 형제나 자매가 없는 아이들에게 우애를 배우게 하는 좋은 기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종전의 교안 위주로 진행되었던 주입식의 딱딱한 교리 분위기에서 벗어나 소공동체 리더에 의해 모임이 진행되고 각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조성하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연습을 하는 좋은 기회이다.

소공동체 모임은 '삶에 대한 고찰(Review of Life)'이라는 방식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주위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사건들을 열거하고 이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게 한다(인식단계). 둘째, 일어난 사건을 기존의 사회구조의 틀 안에서 그의 원인, 진행과정, 결과를 포함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확히 분석하고 논리적인 추리와 가설을 동원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분석과 판단단계). 마지막으로 정확한 판단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상황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다(행동단계).

이런 소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교리교사의 사전준비, 즉 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환기시키고, 소공동체 리더를 훈련시킬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그들에게 또래의 복음선포자로서의 사명감을 복돋워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록 위에서 말한 것처럼 소공동체 모임이라는 새로운 변화가 가톨릭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중이지만 현재는 실험단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성당에서는 아직도 주일학교가 종전의 교리 교육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청소년의 심성 교육이 현재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1996년도에 실시한 ‘청소년 신앙생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설문 전체 응답자의 42.2%(초등부) - 41.5%(중등부) - 38.4%(고등부)가 매주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에 참석한다고 답한 것을 볼 때, 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올라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초,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주일학교에 나오지 않는 이유로는 “놀러 가느라(초등부: 60.5%, 중·고등부: 33.7%)”가 “학업 때문에(초등부: 19.8%, 중·고등부: 31.5%)”를 훨씬 웃돌고 있어 주일학교 교리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리서의 내용이나 교사의 교리 교육 방법이 청소년들의 심성계발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흥미를 끌지 못하고 이에 주말에 친구들과 놀러가러 가는 기회가 생긴다면 서슴없이 주일학교에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리 교육의 내용으로 중시하는 사항으로는 첫째 “인간관계의 원만함”, 둘째 “신자로서의 도리”, 셋째 “교리·성경 내용”의 전달을 꼽고 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교육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는 젊은 교사의 결정은 학생들의 심성 교육에 상당히 고무적이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를 어떻게 청소년에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신자로서의 도리를 둘째 중요한 사항으로 꼽고 있는 교사들이 학생들에 비해 주일 미사 참례, 고백성사에 대해 적극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언행일치의 표양으로서 부정적이다. 셋째 교리 교육의 내용으로 꼽는 교리·성경 지식을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대다수의 교사들이 자신의 교리·성경 지식이 충분치 못함을 시인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확신을 가지 않고 있어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며, 자신의 신앙과 일상생활을 학생들에 앞서 일치시키는 것이 청소년들의 심성 교육을 위해 우선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3) 피정 및 캠프

미사 전례와 교리 교육 외에 청소년들을 위한 심성 교육의 장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피정과 캠프이다. 피정이란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 일상 생활의 모든 일과를 잠시 피하여 고요한 곳(성당이나 수도원 등지)에서 자신의 새로운 색인을 위하여 자신을 반성하고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피정은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실시된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귀중한 기회를 통해 새롭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재정비하고, 하느님의 사랑에 고요히 머물며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피정 중에는 주로 성서에 나타난 하느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이를 자신의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며, 세상사에 지친 심신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피정 중에 이웃들의 귀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들과 사랑과 협력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너그러운 마음가짐을 다지는 심성개발 프로그램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자연과의 신선한 만남을 통해 자연 속에서의 인간의 조화로운 모습을 재발견하고 그를 계기로 인간의 심성을 순화시키는 좋은 기회를 마련한다.

교리 교육이 일년 내내 행해지는 반면 캠프는 주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실시된다. 가정이 속한 지역에 위치한 교회 공동체라는 일상적이고 간헐 공간을 떠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캠프는 청소년들에게 학교 공부의 과중함과 일상의 무미건조함에서 벗어나 같은 나이 또래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특별한 만남의 장이다. 캠프 중에 펼쳐지는 프로그램으로는 자기 성찰 및 발견, 소그룹 토의 및 공동 작업, 자연 관찰, 체력 단련(극기훈련을 비롯하여) 및 협동심 함양을 위한 게임 혹은 운동경기, 밤의 축제(camp fire) 등이 있다.

자기 성찰과 발견의 시간을 계기로 개성을 지닌 나의 유일무이성과 독특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된다. 소그룹 토의 및 공동 작업의 주제로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내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솔직히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같은 그룹에 소속된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려는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는 효과적인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다. 주입식 학교 교육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창조적인 그룹 작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발견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 도시의 콘크리트 벽들만을 보고 자라난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그들의 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진다. ‘흙으로부터 유래한 인간’이라는 성서의 말씀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은 일상의 메마름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자연과의 만남의 통해 청소년들은 충분히 이해하리라 본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나친 경쟁 위주의 학교생활로 인해 익숙해진 이기주의와 이웃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반성하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게임이나 운동경기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혼자만의 힘만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절실히 느끼는 기회를 갖게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협동심을 바탕으로 하는 게임이나 운동경기를 통해 자신의 경향성을 인식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만큼이나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요구되며, 최종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의미가 있음을 배울 수 있다. 주로 캠프 마지막 날에 있는 밤의 축제는 짧은 기간 동안 이였지만 같이 한 친구들이 모여 그 동안 쌓았던 우정을 ‘불’이라는 매개를 통해 확인하고, 자신들이 지닌 젊음의 열기를 마음껏 발산하는 기회를 갖는다.

III. 맺는 말

가톨릭에 있어서 청소년의 심성교육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의 밭을 그에 합당하게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가톨릭교회에서 심성교육의 필요성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다. 허나 성서를 볼 때 하느님께서 태초부터 자신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 하여금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도

록 이끄셨으며,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으로부터 심성교육을 풍부히 받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실현하신 예수님의 자취를 여러 번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의 심성교육의 출발은 하느님의 모상인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도록 이끄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를 긍정할 때 너 앞에 선 나를 발견하게 되며 네 사랑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이다. 나와 너를 긍정하는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사랑의 하느님의 현존에 이르게 되고 그분의 사랑의 관계에로의 부르심(聖召)에 기꺼이 “예”로서 응답할 수 있는 것이다. 신앙인 모두에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는 사명은 예수의 지상명령이며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주고 더불어 사는 진한 체험을 하는 이상적인 기회가 되는 것이다. 교회는 한 알의 밀알(하느님의 말씀)이 좋은 땅(청소년의 마음)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협조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청소년이 일상생활 안에서 활기를 찾고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때 그의 내면은 변화되고 그 변화로 인하여 가정의 사랑 - 부부애, 부모와 자녀들과의 애정과 신뢰, 형제·자매들 사이의 우애 - 안에 성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가 인간화 되도록 밑거름이 될 것이다.

청소년의 심성교육은 가정(부모), 학교, 교회, 지역사회의 공동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부모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부모의 생활표양은 유명한 철학자, 교육학자, 심리학자가 제시한 훌륭한 이론보다도 더 효과적이다. 청소년의 심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교육되어 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첫 순간에 자녀를 마음으로 부터 받아들일 때 아이의 심성은 사랑의 자극을 받으면서 갈아지는 것이다. 심리적인 이유기를 겪는 청소년시기의 심성교육은 자신 주위에 있는 성인들의 실제적인 모범을 통해 이루어진다. 꿈은 원대한데 의지는 약한 자신의 모습을 받아주고 용기를 주는 성인이 있다면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괴리감과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울 것이다. 21세기를 사는 청소년은 이론을 설명하는 선생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의 증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말하신 대로 살다가 죽음을 당하고 끝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중적인 가치관으로 혼란하고 좌절감을 겪는 자신에게 희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살도록 용기를 북돋울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세상은 복음을 전파하는 장이며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데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청소년의 심성교육을 위해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더불어 공동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가톨릭 신앙생활 연구소(1994). 한국 천주교 평신도의 신앙생활 실태 - 92~93년 1, 2, 3차 조사 종합보고서 -. 서울.
- 「공동번역 성서」(1977) (가톨릭용). 서울: 대한성서공회.
- 권이중(1996). 靑少年學概論 -신세대의 이해와 지도-. 서울: 교육과학사.
- 김문조.(1987). 韓國의 靑少年 問題에 관한 再考. 사목, 제112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사목연구소. 7, 4-12쪽.
- 김재은(1987). 家庭과 靑少年. 사목, 제112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사목연구소. 23-30쪽.
- 김재은(1992.). 오늘의 청소년 진단. 사목, 제160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사목연구소. 5-15쪽.
- 문용린(1987). 現代 靑少年의 價値觀. 사목, 제112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사목연구소. 13-22쪽.
- 바오로 6세(1975). 現代의 福音宣敎 - Evangelii nuntiandi -.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안태환(1996). 21세기 한국 천주교회의 나아갈 길. 달라져야 할 청소년의 신앙교육. 서울: 가톨릭 신앙생활 연구소.
- 요한 바오로 2세(1979). 현대의 교리교육 - Catechesi tradendae - 새로운 교리교육의 방향.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요한 바오로 2세(1981). 가정 공동체 - Familiaris Consortio -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역할.

-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요한 바오로 2세(1985). 전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1965. 11. 18).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1965. 12. 28).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조순애(1987). 現行 學校教育의 實態와 問題點. 사목, 제112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사목연구소. 31-37쪽.
- 조재연(1996). 청소년은 교회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재이다. 사목, 제208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사목연구소. 103-121쪽.
- 조혜정(1996).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입시문화의 정치 경제학.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또 하나의 문화 엮음(1997).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2. 서울: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톨릭중등교육자회(1995). 서울시 중·고등학생의 생활 세계에 관한 연구 가치관 및 생활양식 분석 -. 서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육국(1984). 주일학교 백서.
-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육국(1991). 청소년의 신앙과 교육의 사회조사 보고서.
-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육국(1992). 청소년 현황.
-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육국(1996). 청소년 현황.
-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육국(1996). 청소년 신앙생활 설문조사 결과.
- 천주교 서울대교구(1996, 1997). 사목지침서.
- 문화체육부(1996). 청소년 백서.
- 최형락(1987). 가톨릭 교리 용어집. 서울: 계성출판사.
- 편집부(1992). 지상토론 설문 조사로 본 청소년의 교회관. 사목, 제160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사목연구소. 45-57쪽.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1995).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1996). 한국 천주교회 통계(1996. 12. 31. 현재).
- 홍강의(1992). 청소년의 심리발달과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 사목, 제160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사목연구소. 16-29쪽.